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개최

9~10일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서 다양한 이벤트·프로그램 진행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9일 10시 주광장에서 중평국과 증산기원제로 축제가 시작되며, 14시에는 개막퍼포먼스로 '고로쇠 비빔밥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축제는 이틀에 걸쳐 숲을 탐방하는 '출발! 숲 탐험대'를 비롯해 고로쇠 불링대회, '친환경 고로쇠 비빙 화분 만들기', '찾아가는 미술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고로쇠 네컷'(사진촬영), '뺨방을 이겨라'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또한 진안고원의 특산품을 활용한 각종 먹거리 부스 등도 마련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고로쇠물은 '뺨에 이로운 물'이라는 의미로, 자연이 준 갈슘·마그네슘·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팸플릿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봄에만 맛볼 수 있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도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마실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 직접 방문하면 할인 된 가격으로 고로쇠 수액 구매가 가능하다.

남귀현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올해 고

로쇠축제를 찾아주셔서 우수한 품질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수액을 드시고 청량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홍삼축제 홈페이지(www.jinan.go.kr/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이주라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4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저출생 극복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야”

진안군의회, 이주라 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주라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4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주라 의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을 언급하며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령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

급되는 구분을 폐지하여 지원액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태어나고 있는 만큼 출산 의지가 강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난임부부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아말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4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축제 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대 흐름 맞춰 지역축제 재정비 필요”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은 지난 4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축제 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옥 의원은 김장축제를 언급하며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명인을 활용하여 김치맛을 보장하는 축제를 추진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김장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와 축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비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축제에 대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며, 단순반복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제라도 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방향 정립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방문의 해’ 관광사업 완성도 높인다

서재영 부군수·관광·산림 분야 담당 공무원들, 주요 사업장 점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관광 분야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서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광 및 산림 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동행하며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운영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며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일행들은 6일, 설천면 태권어드벤처 조성 사업지(2017~2024, 어드벤처 코스 등)를 비롯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현장(2022~2025, 설천면, 목재체험

센터, 야외놀이시설 등)과 태권마을 조성 사업지(2018~2024, 설천면, 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센터 등), 그리고 안성 칠연지구관광자원활성화 사업(2020~2024, 안성면, 통안천 둘레길 등) 추진 현장 등을 둘러보으며 7일에는 부남 금강관광자원활성화 사업 현장(2020~2024, 마을공동구관장, 출렁다리 등)과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지(2019~2024, 무주읍, 모험레포츠시설 등), 태권브이랜드 조성 현장(2017~2025, 태권브이 로봇 설치, 비밀기지 전시체험관 등), 그리고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지(2023~2027, 름터 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재영 부군수 부군수는 "무주방문의 해는 관광 군으로서 무주군의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에 돌아볼 관광 분야 주요 사업장들이 바로 그 기반으로 완벽한 조성과 운영을 통해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백가이버’ 운영

장수군은 올해도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백가이버’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백가이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기, 보일러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 행정 현장서비스이다.

주요 생활민원 처리사항으로는 전등, 차단기, 스위치 등 전기시설 및 보일러 점검, 샤워기, 수도꼭지, 문손잡이, 못 박기 등 가사 생활민원서비스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해당된다.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는 민생경제과 지역생활팀(063-350-221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

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백가이버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처리반 ‘백가이버’는 작년 한 해 196가구를 방문, 41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 개강

무주군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이 6일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강생 등 1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입학 선서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농업대학 과정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무주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품고 기운차게 첫발을 내디뎌주세요"고 말했다.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2024. 3.~11. 총 50회차)은 '무주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사과과(심화·49명), 복분자과(33명), 스마트강소농과(36명)에서 특화작목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교육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교육이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군수, 장수어린이집 신축 이전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4일 장수읍에 소재한 '장수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축 이전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1995년 개원한 '장수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위치한 의안공원 음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위험성이 제기돼 안전사고 예방과 음벽 재설치 공사를 위해 어린이집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신축 이전은 장수군의 일부 지원과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의 자부담금 마련을 통해 작년 8월 착공해 지난 2월 완공됐다.

최훈식 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군은 지역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장수어린이집의 경우 안전 위험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